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1월 20일(금)  
(율력 12월 23일)

Пятница  
20 января 2017г.  
№ 2(11671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월 19일은 러시아 정교회 명절인 주현절이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통적으로 위스크레센스키 성당에서 가가린공원 웨르호네에 호숫가까지 정교인들의 행진이 있었다. 호숫물 성수예식, 교인 행진, 시민들이 성수에 들어가는 모습.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 주현절 맞아

1월 19일은 러시아 정교회 명절인 주현절이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위스크레센스키 성당에서 명절예배가 끝난 뒤 정교인들의 행진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성수에서 수영도 하고 성수를 집으로 많이 가져가기도 한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할린주 내 곳곳에 22곳을 마련해 놓았다.

위스크레센스키 성당에서 시민들은 가가린 공원 웨르호네에 호숫가까지 행진하였다. 작년과 같이 이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성수를 뿌린 호숫물에 들어갔다. 주현절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성수에 약 8000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비상사태성 구조원들을 대기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뜨거운 차와 비알콜 와인도 준비돼 있었다.

### 주선거위원회, 올해 첫 회의 개최

지난 18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올해 사할린주선거위원회의 첫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지난해 사할린주두마 활동에 대한 텔레라디오 정보, 그리고 선거인들의 법적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개최에 대한 보고를 승인했다.

선거위원회 위원들은 빅토리아 체르카스와 주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소개한 감사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있었던 제7회 러시아 국가두마의원 선거 캠페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선거위원회 위원인 세르게이 포노마료프와 올가 위콜로와에게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 사할린주, <역사의 전환점> 전시회 열려

지난 17일(화) 사할린주과학도서관에서 <역사의 전환점>이란 전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창설 7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다.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법령에 따라 사할린주의 탄생일은 1947년 1월 2일로 제정되었다.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 개막식에 초대된 알렉산드르 파쉬코브 역사전문가, 콘스탄틴 가포넨코 작가와 알레리 벨로노소브 사할린주문화재단 부이사장은 이날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간 사할린에서 세월을 지내온 이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특히, 사할린에서 공로를 세운 자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발굴하여 책으로 편찬하기도 했다.

전람회는 1년 내내 사할린주 경제발전, 자원, 인물, 정치 등에 대한 출판물들을 교체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설해 갈 것이라 전했다.

### <제플리츠니>습호즈 오이 가격 하락

최근에 <제플리츠니>습호즈 온실에서 재배하는 오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 연말에는 오이가격이 190루블리, 1월 9일부터는 120루블리였던 오이 도매가격이 100루블리까지 내려갔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공급되는 오이 가격은 70루블리로 알려졌다.

또한 <제플리츠니> 습호즈는 일부 농촌 학교와 유치원에도 무료로 오이를 보내기도 했다. 돌린스크 구역 같은 경우 소콜, 스타로돕스키예, 비코브 촌 학교들, 홈스크 구역 차플라노워 촌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자선행사로서 오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할린, 첫 동계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경기 유치할 권리 주장

사할린은 지난 17일(화) 모스크바에서 열린 특별합동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에 사할린주에 첫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 동계스포츠경기 유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경쟁 상대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 하바롭스크,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아이들> 하계 스포츠경기 개최지로 알려진 야쿠치아가 나선다.

사할린에서 첫 <아시아의 아이들> 동계 국제스포츠경기 유치를 위한 발표를 야쿠츠크에서 하계 국제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국제경기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사할린의 주지사 올렉 코제마코가 이를 지지했다. 이날 모스크바 특별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와 주스포츠부 안톤 자이체브 장관은 사할린의 청원서를 설명했다.

러시아정부는 사할린의 요청을 검토 후 사할린주는 경기가 개최될 만한 수준으로서 기지를 조성할 만하다고 했다.

<아시아의 아이들> 동계 스포츠경기에서는 휘겨, 하키, 쇼트트랙, 알파인 스키와 스노우보드, 스키경기과 크로스 컨트리 스키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아이들> 경기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러시아의 유일한 프로젝트로서 다음 하계 <아시아의 아이들> 스포츠 경기는 2020년에 울란바토르(몽고)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다시 야쿠츠크로 돌아와 개최된다. 야쿠츠크에서는 1996년 이래로 하계스포츠경기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아시아 아이들> 첫 동계경기 유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사할린에서 개최할 전망이 크다.

(주정부 자료에서)

## KIN 방문단,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전달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 동포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2017'을 전달하기 위해 KIN(지구촌동포연대)단체 대표단이 18일(수) 사할린을 방문했다. 방문단(단장 최상구 KIN사무국장)은 총 12명으로, 킨 관계자, 부산민예총 소속 예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달력은 사할린 한인 1세들의 모습을 담은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사진기자의 흑백 사진으로 채워졌다.

방문단의 첫 목적지는 코르사코브였다. 한인회 사무실에서 우리말 방송국의 취재와 함께 방문단은 1세분들께 달력을 전달했다. 망향의 언덕을 방문한 부산의 전문 예술법인인 남산놀이마당 참가자들은 차후 풍물교실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다음 일행은 새고려신문사를 찾아 본사 이예식 기자에게 눈빛출판사가 발행한 책상달력을 전달했다. 2016년 10월에 이예식 기자의 <귀환>사진집을 출간해 준 출판사가 바로 눈빛출판사다. 책상달력도 역시 이 기자의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신문사를 방문한 한국 활동가들은 새고려신문 연혁과 현황도 알아보았다.

달력 전달에 본격적으로 나선 방문단은 올해 마카로브, 비코브, 크라스노고르스크, 사흐초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글레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사흐초르스 방문에는 박순옥 한인회장과 김홍지 노인회장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본사기자)

새고려신문

##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일전에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주삼보스포츠연맹 유가이 알베르트 부회장과 만나 삼보보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사할린주 삼보(격투기)연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적극적으로 삼보보급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삼보는 글자 그대로 무기없는 자기 방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맨손 격투기입니다. 이 삼보는 여러 민족 격투기에서 좋은 것만 가져온 러시아 무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보 설립자인 와실리 오셴코브가 사할린에서 태어난 만큼 삼보는 당연히 사할린스포츠로 여기고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할린삼보연맹은 사할린주에서 삼보를 발전시키므로써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삼보를 하는 스포츠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는 하나뿐입니다. 다른 스포츠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우리 연맹은 2013년에 처음 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 지원을 사할린주 유도·삼보연맹이 받고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지원 95%를 유도발전에만 썼기 때문에 삼보트레이너들에게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보하는 사범들이 새로 삼보 스포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저는 그때 회사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협조해 주고 정관을 만드는 데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국가 지원을 따고 나니 이걸 올바르게 쓰기 위해 제가 부회장으로 활동해달라고 연맹 회원들이 부탁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우리 연맹에 회장이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회장 대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세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일본을 대표하는 가라데, 중국을 대표하는 우슈처럼 삼보는 러시아의 국기이기 때문에 러시아인이 이 연맹 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삼보를 하는 선수는 많습니까?

- 현재 우리 연맹의 삼보 선수는 1100명이 됩니다. 삼보는 주 내 9개 구역들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노글리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티뭉스코예, 포로나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나와, 홀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입니다. 트레이너는 18명 정도입니다. 감독은 코르사코브 스포츠학교 트레이너인 안드레이 포드고르니입니다. 현재 코르사코브에서 가장 많이 삼보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약 500명 정도됩니다.

# 나의 좌우명은 '스스로를 도와라'

## 사할린주삼보(격투기)연맹 유가이 알베르트 부회장과 인터뷰



하바롭스크 변강 콤포스몰스크-나 아무레 출신 (1971년 생)

경력: 하바롭스크 국립공과대학 졸업 (전문 건축가-엔지니어)

경력: 개인업 (식품 도매업, 건설 등) 스포츠활동: 8살부터 22세까지 유도와 삼보(격투기)를 하였음. 소련 마스터스포츠 후보급.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하바롭스크 변강 유도·삼보 대표팀 선수.

현재 청소년스포츠클럽 <주도칸> 사장 겸 삼보·유도 사범

2013년부터 사할린주 삼보연맹 부회장, 현재 회장 권한 대행.

가족사항: 기혼, 자녀 1남2녀, 손자 1명.

취미: 삼보, 낚시, 기타 치는 것과 노래를 즐기는 것.

- 선생님이 삼보와 유도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들 아나톨리(17세)를 직접 훈련시키신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삼보선수 출신이잖아요. 아들이 8살 때쯤 유도와 삼보를 하는 한 스포츠학교에 데려갔습니다. 첫 수업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유도·삼보선수 출신이고 지역 대표팀 선수로서 많은 지도를 받아왔고 동양격투기와 삼보에 대한 지식도 스스로 갖춘 저로서는 사범들이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교수법도 많이 틀리고 이론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다른 스포츠학교로 전학시켰어요. 거기에 서도 수업과정이 만족하지 않았습다.

그래서 2011년에 스포츠클럽 <주도칸>을 열고 한 건물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강당들을 임대하고 직접 아들과 다른 어린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 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올렸군요. 아들이 극동지역, 사할린 등 대회에서 자

주 우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한국에서 열린 청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삼보경기에 성인으로서 처음 참가하여 62킬로그램 이하 경량급에서 챔피언을 따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는 우리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 저희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사할린 선수들이 극동지역대회에도 많이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극동지역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 3명은 우승했고 청소년 4명과 성인 2명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스터 스포츠 후보급까지 달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도칸>스포츠클럽에 약 300명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사업을 거의 포기하고 60명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삼보사범으로 활약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삼보는 그저 스포츠종목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애정, 아이들의 미덕, 정직, 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발전시키는 국가적 통합교육시스템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삼보를 좋아합니다.

- 삼보를 보급하면서 어려운 점은요?

-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보는 러시아 무술이고 특히 사할린출신인 와실리 오셴코브가 새로운 호신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 주 내에서 잘 발전시켜야 하고 이에 주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주정부나 스포츠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스포츠를 발전시키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삼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감소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적 지원이 약 200만루블이었다면 올해 지원금은 42만5000루블입니다. 이 돈으로 삼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올해 우리는 약 9개 스포츠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할린에서 스포츠지원금 배당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스포츠학교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보면 많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기업인으로서 저도 삼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도 거의 하지 않고 삼보에만 투자하니 좀 지치기는 합니다.

- 사할린연맹이 국제교류도 하고 있지요?

- 네, 맞습니다. 2014년에 우리는 와실리 오셴코브 삼보 설립자 기념 스포츠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경기에 한국, 일본, 중국 삼보 선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삼보연맹 문종금 회장이 처음 사할린에 오셔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문 회장은 사할린한인동포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 사할린을 방문하셨을 때 한인문화회관도 찾고 한인회 관계자들과 만나고, 나중에 <우리말>방송국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삼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 한국에 가보았습니다.

2016년 11월에 한국 군산 삼보팀을 받아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항공 비용은 한국 측 부담, 숙박은 사할린 측이 부담. 2017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같은 조건으로 한국에 가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한국 대한삼보연맹 군산 삼보팀에서 12명(학생 10명, 코치 2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사할린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어요. 어찌됐든 거의 모두 한인동포들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학생들은 만족해했습니다. 한 학생은 저에게 '사할린에 남고 싶다'고까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선수들을 잘 반겨주신 데 대해 코르사코브, 홀스크 한인회와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대회 준비로 한국측에서 훈련시켜달라는 개인적인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경기에는 우리 선수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삼보를 담당한 일본 분, 중국 분도 사할린에 관심을 갖고 꼭 우리 섬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삼보연맹이 잘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가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이모저모

## 사할린에서 종합 학력경시대회 시작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러시아 지역별 종합 학력경시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종합 학력경시대회를 연 첫 과목은 문학으로 앞으로 15개 과목 (수학, 법학, 물리학, 러시아어, 체육학, 경제학, 역사, 영어, 화학, 세계예술문화, 정보학, 생물학, 지리학, 사회상식과 생태학)에서 경쟁할 것이다.

지역 학력경시대회에는 지방자치체 내에서 커트라인의 성적이 넘는 학생들이 선발되어 참가한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종합 학력경시대회 참가 학생은 45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 학력경시대회는 주교육부와 사할린주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모든 시험은 사할린국립대에서 실시된다.

전러시아 종합 학력경시대회 주별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올해도 문학으로 이 과목에서 54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영어, 생태학, 지리학과 생물학 학력경시대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점은 기록될 만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역별 종합 학력경시대회 발표·시상식은 3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최우수 영재들은 결선에 참가하여 학력경시를 치를 예정이다.

##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школьная олимпиада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13 январ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20 феврал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проходит по 16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Первой дисциплиной, открывшей олимпиаду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а литература. Впереди еще 15 испытаний: по математике, праву, физике,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экономике, истории,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химии, миров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е, информатике, биологии, географи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и экологи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олимпиады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школьники, набравшие необход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ходных баллов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участниками олимпиады 2017 года станут более 450 школьников.

Олимпиаду проводи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Институтом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 испытания проходят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 предметом област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а литература. Попробовали свои силы в этой дисциплине 54 школьника.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лимпиады также отмечено по таким предметам, как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экология, география и биология.

Как отмет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

ров состоится в начале марта. Самые достойные «умники» и «умницы» будут приглашены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 77 세의 사할린주민 강도를 잡고 공범은 도주

사할린에서 77세의 연금자가 강도(31세 남자)를 공격하여 잡고 공범자는 도주하도록 했다.

러시아 외무성 사할린주내무관리국에 따르면 티뭉스코예 구역에 크라스나야 티미촌의 유틸레이나야 거리에 위치한 개인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명의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끼를 사용한 강도 사건으로 범죄장르에 따라 특수강도 사건으로 밝혀냈다.

먼저 범인들은 집 현관에 서있던 여주인을 등 뒤에서 어깨를 꺾어 잡으며 돈을 요구했다.

그녀가 도와달라는 고함에 달려온 남편이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이들을 피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노인은 강도를 이겨내고 아내가 신고한 경찰이 오기 전까지 한 남성을 붙잡아 두고 공모했던 18세의 남성은 사건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

어쨌든 월요일 당직경찰관들이 강도를 체포하게 되었다. 경찰은 수사망에 오른 범죄자들 중에 한 집을 수색하는 도중 사건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 압수하면서 현재 두 명의 강도를 특수강도죄로 구속 수사 중이다.

(8면에 계속)

문화생활

주미술관: 사할린 젊은이들의 작품 소개



2년전에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훗카이도 젊은 미술가들의 창작을 소개하는 <삿포로 미라이>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작년 8월에 사할린주예술콜레지 학생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삿포로 미라이>에 대한 <우리 대답> 전시회가 일본에서 열렸다.

지난 13일(금) 사할린 젊은이들의 작품들을 사할린주미술관에서 전시하도록 했다.

전시회의 출품작들은 주제, 자료, 기술, 전통적인 그림에서부터 만화 프로젝트까지 아주 다양했다.

개막식에서 사할린주예술콜레지 디자이너 미술과 조성용 과장은 삿포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과 우리 나라 미술교육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취재: 이에식기자)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1호의 계속)

소련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은 황인갑, 백낙도, 안태식, 강명수씨 등 4인은 가재도구까지 모두 처분하고 이웃들과 송별회를 한 후 나홋카로 가서 일본으로 떠나는 날만을 기다렸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정부가 그들의 귀환을 승인하기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마침내 한국에서 승인 통보가 내려졌을 때, 그러나 그들은 일본으로 향할 수 없었다. 소련으로부터 받은 출국 허가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중 3인이 사망했다.

한인들을 분노와 좌절로 몰아간 소련의 처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976년 7월 일본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함에 따라, 그 결과로 사할린 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국 희망자는 신청하라'는 공고가 나붙었다. 당시 이 소식은 수도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홈스크 등 일부 대도시에만 알려졌음에도, 새벽부터 한인들이 몰려들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발생했다. 일주일 사이에 출국 신청 접수를 마친 한인만 모두 1천여 명. 그러나 이때도 북한의 강력한 항의가 악영향을 미치면서, 소련은 일부에게만 출국 허가를 내주는 데 그쳤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에 격분하여 시위를 벌인 한인들에 대해 소련이 보인 비인권적인 처사다.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도만삼(코르사코프시 거주) 씨와 그 가족을 포함해, 황태룡·유길수(유즈노사할린스크)·이창남(홈스크), 김일수(포로나이스크) 등과 그들의 가족 총 40여 명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76년 9월, 일본에 착륙한 소련 미그25기 조종사(소련인)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소 관계까지 악화되자, 사할린 한인들은 더 이상 귀환에 대한 어떠한 말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

해방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할린 한인의 귀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은 사할린 한인은 엄연히 한국인이므로 그들이 원한다면 일본을 경유해서 귀국할 수 있도록 소련과 협상해주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밀고나갔다. 한편 소련은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교섭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 정부는 단지 재외동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상대방의 귀환 교섭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의 운명은, 자국민을 감싸 안아야 할 의무가 있는 남과 북에 의해 농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훗카 4인 중 안태식 씨가 사망 직전 고향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냉전체제에 매몰된 남북한 정권에 의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당시 이 편지를 보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과연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 나는 그 점이 궁금했다. 그리고 또 알고 싶었다. 현재 정권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석환에게 ...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궁금하구나. 이곳 아버지는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심정이다. 힘을 다해서 노력해 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보람이 없구나. 날개라도 있으면 날아가겠는데, 가슴만 타지. 아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 죽으면 사망 날짜는 누군가 전할 것이다. 그런 줄 알거라. (...)”

변화의 물결 속, 고향 가는 길 열렸지만...

1970년대 말에서 2014년 현재까지

사할린과 한국을 잇는 서신 왕래와, 3개국(한국·소련·일본) 정부 및 적십자사에 대한 탄원 활동을 주도한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의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은, 1975년 다카키 겐이치 변호사가 벌인 청구소송에 의해 한 차원 더 발전하기에 이른다.

다카키 변호사는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 변호인단>을 결성, 1975년 12월 사할린 코르사코프에 거주하는 엄수갑 씨 등 4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동경지방법원에 제소한 「사할린 잔류자 귀환 청구소송」을 책임지고 도맡았다. 이 재판의 핵심은 ‘사할린 한인이 일본에 귀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다카키 변호사는 “한인들이 일본의 강제 동원으로 사할린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들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귀환시킬 의무가 있으” 며, 이는 일본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사회권 규약) 중 ‘자국에 돌아갈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외교 의제로 격상된 한인 문제

이 소송은 무려 14년간이나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할린 재판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어 재판을 홍보하는 한편, 사할린 한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1983년 4월, 오오누마 야스아키 교수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한 전후책임연구회>가 결성된 것도 이 같은 활동의 성과라 하겠다.

(계속)

이규정 소설가 불운의 걸작 '먼 땅 가까운 하늘' 재출간된다

부산의 대표 원로작가

사할린 동포들 삶 다룬 작품 1996년 서울 동천사에서 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절판되고 묻혀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직접 사할린으로 건너가 2주일간 머물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사할린 동포와 인터뷰하며 꼼꼼히 취재했지요. 원고지 매수만 4600장, 탈고까지 6년이나 걸릴 정도로 공을 들였던 작품입니다."

부산의 원로 작가 이규정(80) 선생은 장편소설 '먼 땅 가까운 하늘'(전 3권·아래)을 펴낸 1996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후손이 기억해야 할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많은 독자가 이 책과 만났으면 했는데 친신만고 끝에 재출간이 이뤄져 정말 기쁩니다."

이규정 작가가 펴냈던 불운의 걸작 장편소설 '먼 땅 가까운 하늘'이 21년 만에 재출간된다.

산지니출판사는 이 작가의 절판된 장편소설 '먼 땅 가까운 하늘'을 재출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편집과 교정 작업에 들어갔다. '먼 땅 가까운 하늘(전 3권)'은 일제강점기 정음으로 사할린에 끌려간 우리 동포의 삶과 한과 꿈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1996년 서울 동천사에서 펴냈다. 사연 많고 한 많은 사할린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숨결을 살려낸 빼어난 리얼리즘 소설이었다.

하지만 출간 직후 출판사 영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가 겹쳐 책이 절판돼 버렸다. 독자들이 책을 만날 기회가 일찌감치 끊겨버린 것이다. 이 작품은 사할린 동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린 한국 문학 작품 가운데 상당히 일찍 나온 소설이란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 컸다. 이 작가는 초판의 '작가의 말'에서 "사할린 동포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20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먼 땅 가까운 하늘'은 본지가 땅각의 역사를 기록하는 소설을 조명한 기획 보도에서

"지역 문학계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작품이자 힘을 모아 재출간 방법을 모색해야 할 작품"으로 꼽은 것(본지 지난해 6월 10일 자 22면 보도)을 계기로 재출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보도 이후 지역 소설가들이 이 책이 재출간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부산의 산지니출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21년 전 발간한 책자 말고는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동천사에 원고 워드 파일이 남아 있는지 문의했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남겨진 것이 없었다. 자칫 재출간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이규정 선생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지역 문단 관계자가 3권짜리 '먼 땅 가까운 하늘'(920쪽 분량)을 직접 타이핑해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다시 한번 친신만고 끝에 '먼 땅 가까운 하늘'의 원고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산지니 강수걸 대표는 소설 제목이 '사할린'(가칭) 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하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책은 우리가 점점 잊어가는 사할린 동포에 관한 기억을 잘 형상화했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독자에게 감동과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АСЬ II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25-ЛЕТИЮ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НТОК

16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в Москве, в Деловом центре ЛОТТЕ состоялась вторая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25-летию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НТОК.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являлись АНТО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ОФСТ) 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0 молодых ученых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 от юных студентов-новичков до диплом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андидатов и докторов наук из 10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и Узбекистана: Москва, Воронеж, Новосибирск, Екатеринбург, Омск, Уссурийск, Хабаров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алининград и Ташкент.

Программа конференции хоть и была ограничена одним днем, получилась насыщенная

и состояла из 3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х частей – пленарной, секции стендовых докладов и тренинг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начала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участникам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АНТОК, д.т.н., профессора Тен Эдиса Борисовича, Президента ООК Цо Василия Ивановича, Первого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АНТОК, д.ф.-м.н., профессора, академика РАН Сон Эдуарда Евгеньевича, Аташе по наук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жон Тэк Рёл 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KORUSTEC, к.пол.н. Ким Тэ Хи.

Пленарная часть включала интересные и содержательные доклады авторитетных ученых: к.пол.н. Ким Т.Х. «Научны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кадемик РАН Сон Э.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аука 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азличия и общие трен-

ды», д.т.н. Хван А.Д.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я инновационных разработок. Основные пути. Проблемы».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работали на секции стендовых докладов. В холле делового центра докладчики разместили 13 красочных плакатов,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ей научной работе и ознакомились с работами коллег.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секции придавало разнообразие науч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Ребята представили работы по физике, математике, медицине, фармакологии, агрономии, инженерии, архитектуре и общественным наукам. В рамках секции был проведен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е доклады путем тай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Каждый из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ал экспертом по оценке стендовых докладов.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I место – Ким Надежда (Новосибирск), II место разделили Хон Владислав (Екатеринбург) и Кан Василий (Омск), III место также разделили два победителя: Дю Евг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Хе Александр (Новосибирск)! Победител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ами и ценными призами. Оста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сессии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Тренинг на актуальную для молодых ученых тему «Коммуникация в научной сфере: психология и технологии публич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проводимый к.пол.н., доцентом МГУ Селезневой А.В., завершил рабочую часть конференции. Занятие состояло из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блоков. Молодежь с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слушала лекцию,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виде диалога

с аудиторией. Затем последовала практическая часть, гд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группы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раткого публич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заданную тем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упп выступали по очереди, попутно тренер вместе с аудиторией детально анализировали выступление, исправляли типичные ошибки. С первых минут тренинга аудитория была увлечена и три часа пролетели незаметно в дружеской и веселой атмосфере.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лся товарищеский ужин в корейском ресторане «Менга» гостиницы «Салют», где участники насладились угощениями и вдоволь наговорились со старыми друзьями и новыми знакомы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НТОК (30 декабря 2016 г.)

###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Олюня Дин

В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е в период Корё доминировали конфуцианство и буддизм. Вс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влиянием конфуцианства. Помимо высшей конфуцианской академии, существовала и сеть частны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школ. Был создан перв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труд в духе китайских летописей – «Самгук саги»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и Трёх государств). Конфуцианство в период Корё воспринималось не просто на уровне «китайской мудрости», но стало философски осмысливаться.

Буддизм в период Корё достиг своего наивысшего расцвета. Он, слившись с народными местными верованиями, стал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ологией. В столице 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троились громадные монастыри, которые получали земельные наделы и освобождались от налогов, а монахи – от выполн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винностей. Различные буддийские обряды исполнялись во врем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торжеств. Монахи играли активную роль в политике, их вооруженные отряд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Помимо конфуцианства и буддизма,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идеологии играла геомантика – учение о двух началах (инь и янь) и пяти элементах. Геоманты рассматривали землю как органическое живое существо, давали советы о пригодности того или иного места для жизни. В Корё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приобрел вопрос об определении оптимального места для столицы. Именно геомантическим построениям Сеул обязан своим статусом Южной малой столицы.

Пользовался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а и даосизм (китайское учение о «пути вещей»). Слившийся с шаманизмом, даосизм способствовал росту поклонения горам и рекам, которым давались имена и даже должности.

Большое развитие в Корё получила литература, которая была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ы на чиновничьи должности и ученые степени. Экзамены требовали хорошего знания вэньяна (или ханмун, китайская иероглифическ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Более того, от чиновников в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даже требовалось ежемесяч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очиненных ими стихов. В жанре стихосложения в Корё появилось немало известных поэтов, получивших признание даже в суцском Китае.

Период Корё занимает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важное место. Это было время воссозд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единого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принци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заложенные еще в раннее средневековье. В это время Корею пришлось отстаивать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борьбе с несколькими волнами иноземных нашествий – киданями, чжурчжэнями и монголами, а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выдвинула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арену новые социальные сло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период Корё был ознаменован целым рядом выдающихся достижений, впервые сделавших Корею известной далеко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юн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 Перв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в борьбе за репатриацию на родину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44, 47, 49, 50, 2017г. №1)

«Устав Компартии Кореи» написан четко, организованно и продуманно. Автор внес в него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оложения: порядок принятия и исключения из партии, ее идеологию, цели, задачи, методы борьбы, структуру партии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Центральный орган печати, местные комитеты), порядок и организацию выборов. Несомненно, Син Чун У в своей работе использовал сочинения мировых деятеле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 при аресте у него изъяли сочинения В.И. Ленина и И.В. Сталина («Краткий курс истории ВКП(б)», «Историю дипломат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вырезки из советских газет, а также читательский бил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мощь» классиков, работы Син Чун У вызывают огромное уважение,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закончил он всего лишь начальную японскую школу, 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рочие предметы изучал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а для истории и газета «Объединимся», первый (и единственный) номер был написан и напечатан на гектографе в июле 1951 года. В газету вошли: редакторская стать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здания газеты и целях, которые газета поставила перед собой, статьи Ким Ён Нама «Молодежь, буде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вижении з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Ким Тхя Ма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осуществится только путем объединенной борьбы», Ким Ен Хи «Задачи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и Син Чун У «Опыт учит».

Красной нитью через всю газету проходит мысл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рьбы за репатриацию в Корею. Несколько цитат из

газеты дают читателю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иде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охватила актив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Есть ли хоть один человек из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й на Сахалине, не думающий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 если выбросить из головы вопрос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то у корейцев больше ничего не останется. Вопрос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постепенно впитается в горло 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кровь, в кость. Все тело стало пламенем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С разных мест Сахалина от имени отдельных лиц, а также в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порядке на и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Верховных орган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ы писали по поводу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Однако до сего времени нет никакого ответ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у нас име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й путь. Этот пу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вс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объединились и выдвинули сво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 если нужно буд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слали их в Верховные орган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г. Москву,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г. Пхеньян,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 г. Сеул, япо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 г. Токио и в Организацию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в г. Нью-Йорк. Без такой широкой борьбы корейцам возврати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чти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полагаем, что люди написавшие манифест, устав и выпустившие первый номер газеты, обладали необходимыми знаниями (при окончании нескольких классов японской шко-

лы), могли на высо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составить полит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обладали знаниями о мире – в частности, были осведомлены о событиях в Корее и идущей там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определенные цели и задачи. Все активисты были молодежью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 Син Чун У было 24 года, Син Бо Гюну – 20 лет, а Ким Ен Гван и Квон Мен Сан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Несмотря на молодость активисты смогли привлечь на свою сторону других корейцев. В силу того, что партия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недолго, она не смогла охватить своим влиянием широкие массы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Тем не менее, история этой партии сохранилась в среде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как акт несомненного мужества и гражданской решимости отстаивать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зда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мпартия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зримым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борьбы за репатриацию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бстановка объективно препятствовала осуществлению желаний корейцев,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шло нужным подавить эту борьбу в целях сохранения спокойствия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на Сахалине.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но не последняя попытка исправ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людям, не по своей воле оказавшим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чуж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люня Дин.  
(журнал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ан Ги Мун: Ситуацию вокруг ТНААД можно реши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ём

Споры РК и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по поводу размещения комплексов ПРО ТНААД можно реши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ём. Об этом заявил бывший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ООН Пан Ги Мун, выступая 18 января с лекцией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сон в Кванчжу. Он также указал, что ТНААД носи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фактически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ится на грани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который начнётся в случае выбора неправильного метода разрешения нынешней напряжённой ситуации. Это,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иведёт к масштабном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а затем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онфликту. Это является основанием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ТНААД. Вместе с тем, Пан Ги Мун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ъединяющего лидерства, которо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широкий диалог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со всеми слоями общества, не разделяя их по взглядам. Говоря о способе решения нынешних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РК,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мены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 «Нодон синмун»: Пхеньян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ракетную программу

СК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враждебных сил». Об этом пишет в воскресенье глав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орган правящей ТПК. В статье на эту тему говорится, что США регулярно предпринимают попытки лишить СК возможности запускать спутники. Используя ООН, Вашингтон пытается доказать, что цель таких запусков - испытание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дальнего действия. Однако «никому не удастся заставить Пхеньян отказаться от законного права на запуски искусственных спутников Земли» и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мировую косм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 пишет «Нодон синмун».

## Тхэ Ён Хо: Побег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литы могут происходить чаще

Пото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из чис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литы увеличится. Об этом 17 января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рол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и заявил бывший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посольства СК в Лондоне Тхэ Ён Хо, бежавш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месте с семьёй на Юг.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годня довольно мног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северян, ожидающих возможности бежать на Юг. Он указа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олитики должны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ре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на Севере. По его словам, СК является н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а огромным рабским обществом, власть в котором передаётся по наследству.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в отличие от Ким Чен Ира биография Ким Чон Ына не раскрывается, что создаё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По его мнению, СК рассматривает РК не как объект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а объект уничтожения. Так, на Севере мир наступит только после разруш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й власти путём народного восстания.

## Мун Чжэ Ин –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ред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Бывший лид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Чжэ Ин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ред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за него готовы проголосовать 27,9% респондентов. Это на 1,1% больше, чем неделю назад.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бывший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ООН Пан Ги Мун – 20,3%, на третьем – мэр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 11,3%. Далее следуют бывший лидер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Ан Чхоль Су – 7,1%,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Ан Хи Чжон – 5,2%, мэр Сеула Пак Вон Сун – 4,3%.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плюс-минус 2,2%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 Продажи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РК растут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объём продаж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превысил 100 трлн вон или 85 млрд долларов. Отрасль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охватывает таки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издание книг и комиксов, музыка, игры, кинофильмы, мультфильмы, телепередачи и сериалы, реклама, интернет и контент-решени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за 2016 год общий объём продаж составил 89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почти на 6%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5 годом. Это больше чем рост экономики, составивший в 2015 году 4,8%, 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 примерно 2,7%.

(RKI)

##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 Как дальше продолжать рубрику!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му проекту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секц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в форме рубрик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в печат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СМИ пошел уже четвертый год. По свое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рубрика в газете «Коре ильбо» явный фаворит. Что же стоит за этим рекордным долголетием газетной полосы?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ичина в том, что рубрика н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а коллективный проект, в котором задействовано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в Казахстане, Южной Кореи,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е и др. Во-вторых, он находит поддержку и стабильно финансиру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ъединения. В-третьих, материалы публикуются со строгой регулярностью: первые два года – еженедельно, а третий год – раз в две недели. В-четвертых, рубрика выходила не только в газете «Коре ильб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азетах «Ханин ильбо», «Корея таймс»,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остовские корейцы», но и интернете на сайте koresaram.ru и в Facebook на страницах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и «Коре сарам или корейцы СНГ». В-пятых, забегая вперед, отмечу, что читателям импонирует непредвзятое отношение автора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вободное от огульных обвинений Пхеньяна и ангажированной апологетики Сеула в проводимой ими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Анкета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 газете «Коре Ильбо»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Сэ Коре синму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koresaram.ru и на страницах Фейсбука на личной страниц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в группе «Корейцы СНГ» и на личной странице профессора Кима Г.Н. С момента первой публикации анкеты прошло 45 дней и поступило 210 ответов, в том числе 205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обычной почте в редакцию «Коре ильбо» и мне лично поступило всего 5 заполненных на бумаге

анкет. Поступившие ответы из республик СНГ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из Узбекистана – 29%, из Казахстана 27 %, России – 29 %, Кыргызстана – 7%, Украины – 4%, Таджикистана – 3% 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2%. 92 процента давших ответы имели корейскую фамилию, 8 процентов были либо детьми из смешанных браков, либо женами или мужьями корейских брачных партнеров. По полу ответившие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примерно поровну: 53% — женщины и 47% — мужчины.

По возрасту такие доли : а) 18-25 лет – 17%; б) 25-45 лет – 38 %; в) 45-60 лет – 36%; д) старше 60 лет – 9 %.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ольшинство составили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25 до 60 лет – 74%. Пожилые люди слабо пользуются интернетом, а чтобы ответить письмом по почте, надо потратить время и деньги. На вопрос: Как долго вы читали очерки? а) все три года – ответили 18%; б) год и более – 31%; в) менее одного года – 39%; д)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 12%.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ответивших указали, что они читали от одного года до трех лет. Почему вам нравятся очерки? а) новизна содержания – 86%; б) логика и аргументация – 72%; в) нейтральная позиция – 93% (кажд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оценивался в 100 баллов). Самой полож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публикаций, по мнению ответивших, является – нейтральная позиция автора. Что Вам менее всего понравилось в очерках? а) известный материал – 31%; б) неполное раскрытие темы – 78%; г) недостаточная острота и критичность – 57%. (Кажд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оценивался в 100 баллов). Самая слабая черта публикаций, по мнению ответивших, – неполное раскрытие темы.

Считаете ли Вы, что тональность очерков должна быть нейтральной? а) да – 78%; б) нет – 19%; в)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 3%.

Стоит ли усилить критик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 политики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а) да – 53%; б) нет – 21%; в)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 26%.

Какие, на Ваш взгляд, новые

темы требуют освещения в рубрике?

Когда улучшатся отнош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Каки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ят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тупают их Пхеньяна в Сеул по улучшению отношений?

Кто из иностранцев бывает в КНДР?

Политика Пхеньяна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последний вопрос: Следует ли публиковать в рубрике мнения читателей, ответы на поставленные в очерках вопросы?

а) да – 69%; б) нет – 12 %; в) затрудняюсь ответить – 19% .

За прошедшие 45 дней мне довелось получить много откликов и мнений читателей, всем уделено время и проявлен интерес. Подводя черту под всеми полученными ответами, замечаниями и пожеланиями,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главное: Во-первых, корейцы СНГ проявляют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к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и проблем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вторых, явно просматривается желание больше получать материалы по Северной, чем по Южной Кореи. В-третьих, постоянные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читатели предпочли бы простому описанию событий или перечислению фактов авторскую оценку и анализ.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пираясь на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автор в своих статьях рубрики постарается учесть в 2017 году все пожелания читателей.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читателей рубрики с наступившим новым годом и желаю здоров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успехов и мирного неба над всей планетой!

**Герман Ким,**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секц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17-ого созыва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метили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христиан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 Крещение Господне

По религиозной традиции во всех храмах области в ночь с 18 на 19 января были совершены Божественная Литургия и чин Великого освящения во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олночь богослужение в кафедральном Соборе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ва возглавил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По окончании службы верующим раздали освященную воду. Многие из них также проследовали в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нять крещенскую купель.

По приблиз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в первые минуты наступившего праздника в районе озера Верхне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2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ик посещения пришелся на полночь, когда перед входом в купель собралась внушительная очередь. Впрочем она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иссякла благодаря хоро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цесса со стороны руководства парка,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усилий сотрудников МЧС, следивших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особым образом оборудованной «ледяной ванны» глубиной чуть более метра.

Для удобства посетителей были обозначены вход и выход. Большую часть вод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закрыли, а дно купели выложили деревом, сделав по ее краям удобные перила и тумбы для полотенец и вещей верующих. За их здоровьем в течение всей этой ночи пристально следили дежурившие водолазы и медики. По окончании водных процедур купальщикам предлагался горячий чай.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ни также могли пройти в пункт обогрева 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мобильных раздевалок.

По подсчетам спасател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первые два ночных часа 19 января главная куп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яла около 500 человек.

- Я уже 15 лет купаюсь. Это лучшие ощущения в жизни, - поделился эмоциями от погружения в ледяную воду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лексей Дятленко.

- Перед тем как зайти в купель нужна небольшая разминка, - рассказал еще один опытный крещенский купальщик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рене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Андрей Синдяков. - Надо разогреться в течение 5-10 минут и только потом отправляться в воду. Для организма холод очень полезен – наступает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шока, которое мобилизует все внутренние резервы и дает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Ощущения непередаваемые, после процедуры очень легко себя чувствуешь и жить хочется с радостью.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будто заново родился.

- То что переживаешь в момент погружения не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Это настоящий восторг.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принимаю крещенскую купель и буду дальше это практиковать, - отметила Виктория Овчинникова из Долинска, которая специально отпросилась с дежурства на работу, чтобы посетить иордань.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православными верующими погрузился в крещенскую купель 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здравил собравшихс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с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христиан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 В этот день, как считается, происходит таинство очищения души и тела водой, которая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ые свойства. Православные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данной традиции, кто - окунаясь в купель, а кто – просто совершая омовение дома.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верующих с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и пожелать всем счастья, здоровь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верующих оборудованы 22 крещенские купели. По прогнозам сотрудников МЧС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таинстве омовения вод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19 январ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должны были около 8 тысяч человек.

## Виталий Мутко поддержал заяв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оведение первых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зимни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Данный вопрос обсуждался в Москве, гд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прошло заседани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 предложения о готовности Сахалина провести прести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а также член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от региона Дмитрий Мезенцев 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Напомним, сейчас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конкурирует за право проведения «Детей Азии» с тремя другими субъектами Федерации - Якутией, Хабаровским и Красноярским краями. При этом заяв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овокупности преимуществ выглядит наиболее приемлемой, считает Виталий Мутко.

Такой вывод сделан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х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из расчета имеющейся на юге острова развитой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регион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сборную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на острове проведет последние этапы подготовки к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 приезду олимпийц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ают работы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центр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его объектам, расположенным в городской черте,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остановок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гостиниц, Сахалин получил мощные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перед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в борьбе за принятие первых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зимних «Детей Азии».

Основа центра -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де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В предстоящие годы здесь появятся еще 2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горнолыжная деревня и около 20 километров новых трасс. При этом будут созд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в дисциплинах: слалом, слалом-гигант, супер-гигант, скоростной спуск, а также сноуборд в дисциплинах: слалом и слалом-гигант.

Более чем на 7 километров увеличится и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сс 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неподалеку от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А на примыкающем комплексе трамплинов, у подножия сооружений для летающих лыжников, появится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с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м залом, помещениями для хране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инвентаря.

Помимо этого, в 2017 году Сахалин получит собственный биатлонный центр.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дисциплинах: спринт,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гонка и эстафета. Здесь появятся освещенные трассы длиной до 4 километров, стрельбище на 30 установок с мишенями и гостевой дом на 70 номеров.

Развивать планируется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сноуборд-парк на горе Парков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м году здесь модернизируют канатный подъемник и усовершенствуют трассу для слуп-стайла.

К началу 2018 года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же будет 4 крытых ледовых арены. К двум имеющимся добавятся корт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льдом у дворца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и арена, которую сегодня возводят на средства частного бизне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За счет внебюдже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здесь также создают и друг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занятий различны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лноц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проживания 250 спортсменов.

- «Дети Азии» – несомненно,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Мы уверены, что он способен придать мощн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спорта 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ка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круга. У Сахалина в самой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стязан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по таким дисциплинам, как биатлон,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лыжные гонки,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сноуборд,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хоккей и шорт-трек. Поэтому рассчитываем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на то, чтобы принять эти прести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 отметил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Он назвал и друг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акторы в пользу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ые зимни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Например, регион имеет прямое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более чем по 20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том числе с Москво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всеми крупными город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Японией и Китаем.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к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работе, связанной с подготовкой к провед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привлечен член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Мезенцев. Сенатор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пытом, в частности, в вопроса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и.

-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федеральные власти уже приняли аргументы и дово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готовности провести на высоком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 уровн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Важно, что в этих вопросах мы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Виталия Мутко -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 Сахалин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ервых зимних «Детей Азии»,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Мезенцев.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обещана поддержк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В Холмск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новый канатно-бугельный подъемник

Горячим чаем, свежей выпечкой и веселой музыкой встречали сегодня всех, кто пришел на холмскую горнолыжную базу. Здесь, у подножия горы, названной в честь горнолыжника Виктора Верминского, собрались опытные горнолыжники и просто любители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Петр Русаков - коренной житель Холмска. Сейчас на пенсии. На лыжи не вставал много лет. Но не смог обойти вниманием такое важное для города событие.

Пришел на открытие подъемника с внучкой и взял с собой лыжи.

- Взял так,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Думал: уже никогда не прокачусь. Однако встал и удивился: а тело то помнит! Как же хорошо и приятно было спуститься сегодня по хорошей трассе, да еще и так легко подняться на канатке. А ведь помню мальчишкой я вс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проводил на этой горе. Трасса была очень плохая. Вы просто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как мы поднимались наверх. Обматывались веревкой, цепляли крюк с тросом, вот так, еле-еле и ползли. Сегодняшнюю трассу с той, конечно, не сравнить! – поделился эмоциями Петр Русак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натно-буксировочной дороги и подготовка горнолыжной трассы в Холмске начали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реди желающих опробовать новый подъемник - и он сам. Качество трассы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ряет лично, спустившись с горы на лыжах.

- На этой горе воспитаны десятки извест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по-прежнему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интересен для жителей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Здесь катаются как малыши, так и люди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данный вид отдыха для них комфортным и безопасным. В целом, трасса достойная, но есть еще над чем трудиться. Необходимо расширить подъездные пути,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снежение горы и ее освещение. Это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здесь и в темное время суток, - 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мэра Холмска Андрей Сухомесов отметил, что планы по дальнейше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рассы уже есть.

-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сегодня наш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обретает новую жизнь. Подъемник - это только первый шаг. Летом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еще одной трассы на 900 метров. В планах даже организация горки для желающих кататься на тюбингах, ледяных санях.

- Развитию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регионе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И вот сегодня одним спортивным объект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о больше, а значит, и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вовлеченных в спорт, вырастет. Уверен, что это место станет любимым у холмчан,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Антон Зайцев.

С открытием новой трассы, у холмчан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меж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конкурс объяв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К участию в нем приглашаются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и не являющие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Победитель получит субсидию,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и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Как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главной его целью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в области условий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частникам –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ам необходимо в срок до 10 февраля 2017 года направить в адре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1. Заявку и уведомление, оформленны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твержденными формами;
2. Завер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ей-заявителем копию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остановке на налоговый учет и учред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со всеми актуальными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3.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4. Письма поддержки учрежде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налич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ей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тендующ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субсидии, вправе приложить к заявке иные документы.

Конкурс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размеще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деле: «Общество и полити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Конкурс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убсидий некоммерче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е являющим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и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конкурса осуществляет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лефон: (4242) 670-297, факс: 469-354.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e.ulyanova@admsakhalin.ru. Секретарь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Ульянова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Материалы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우리말로 깨닫다]

### 어려워서 배우고, 배워서 기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다. 전현 선생님 책 <다 좋은 세상>을 읽다가 어렵다는 말은 배우겠다는 말이라는 부분을 읽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포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만다.(수학 문제 이야기가 아니다) 그야말로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일의 답을 가르쳐 주어도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답을 알았는데 과정이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다. 사실은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고 미칠 것 같은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들추어 보는 문제마다 어렵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 든다. 포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내 삶에 관한 문제고, 사람과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떠오르는가? 어떤 문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가? 어떤 문제가 나를 미치도록 만들고, 나를 슬프게 하는가? 답이 이해가 안 되고, 풀이 방식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혹시 답이 틀린 게 아닐까 의심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늘 이와 같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며 배우고 공부한다. 이렇듯 세상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다. 정해진 답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복잡해지고,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이 정답이 금방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도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그렇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수많은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명상해야 한다. 치열하게 내 속의 벽을 깨뜨려야 한다.

원수마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진리인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실제로 행동으로도 옮긴다. 모든 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리인데,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 어떨 때는 자식과 형제도 차별한다. 심지어 학생도, 환자도 차별한다. 학력, 직업, 지역, 취향에 대한 차별은 끔찍하게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외모에 의한 차별은 어떤가? 외모에 대한 비하가 도를 넘었다. 물질에 의한 차별은 어떤가?

물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진리에 대한 답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배우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가며 죽는다. 이것은 진리고, 정해진 답이다. 그런데 우리는 병드는 것이 원망스럽고, 늙지 않으려, 또는 늙어보이지 않으려 애를 쓴다. 죽음은 늘 내 곁에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내 태도는 늘 복잡하다.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진리는 배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고, 자연스레 느끼는 감정의 문제이다.

때로 글도 모르는 이가 훨씬 진리를 잘 느끼며 살기도 한다. 진리 속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사람을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쉽게 용서하며, 자신의 생로병사를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런 게 인생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진리를, 그 정답을 생각하는 내 감정의 자세를 깊은 명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어려워서는 배우고, 배워서 기쁘다.

조현웅,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6

### 아주 재미있는 수필을 읽어 볼 겁니다

(1호의 계속)

5. 보기와 같이 '-(으)르리 만무하다'를 사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바다가 없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추억이 있다.

→ 바다가 없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추억이 있을 리 만무해요.

(1) 담배나 술이 건강에 좋다.

→

(2)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이를 때리다.

→

(3) 바닥이 시멘트로 깔려 있으면 식물이 잘 자라다.

→

(4) 안 하던 공부가 갑자기 잘 된다.

→

(5) 운동도 하지 않고 보약만 먹는다고 건강이 좋아지다.

→

읽기연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 천득 (1910-2007)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어찌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으로 병원에 피곤한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덥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적조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 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 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10분의 1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맨발로 잔디 밟기를 좋아한다. 고무창 단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롯불 재를 만지기를 좋아한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아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그리고 이를 가는 우리 딸 웃는 얼굴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폭동 앞을 바라보면 걸음이 급해지고, 뒤를 돌아다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예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주신 색종이 같은 빨강, 보라, 자주, 초록, 이런 황홀한 색깔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나라 가을 하늘을 사랑한다. 나는 진줏빛, 비둘기 빛을 좋아한다. 나는 오래 된 가구의 마호가니 빛을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좋아한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며, 꼬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주 가슴이 편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젊은 웃음 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가 귓속말을 하는 서영이 말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비 오는 날 저녁 때, 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새로 산 양서 냄새, 털옷 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길은 향기, 국화, 수선화, 소나무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 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도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 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겨울날 찰수 강변을 걸으면서 활던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열댓 평 건물에 땅이 오십 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좋은 재료를 써서 지은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고, 집 내놓으라는 말을 아니 들을테니 좋다. 내 책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 오직 못할 친구는 없을 것이다.

나는 3.1절이나 광복절 아침에는 실크 헤트를 쓰고 모닝 코트를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여름이면 배 고의 적삼을 입고 농립을 쓰고 짚신을 신고 산길을 걷기를 좋아한다.

나는 신을 좋아한다. 태사신, 이름 쓴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 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삼은 집신, 나는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 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제 52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 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17. 4. 16 (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20분 전

4. 장소 및 시행처: 사할린한국 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 시 : 2016. 1.15 ~ 2016. 1.31

나. 장소 :

6. 응시 수수료: 300루블

7. 시험결과 발표: 2016. 6.16 이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교 부 장 소	주 소	전 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77-летний сахалинец задержал грабителя, его поделщика обратил в бегство

На Сахалине 77-летний пенсионер отбил от 31-летнего грабителя, а его 18-летнего сообщника обратил в бегство.

Как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МВД России, разбой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лицейские раскрыли по горячим следам. Попытку ограбления частного дома на ул. Юбилейной в селе Красная Тымь криминальная парочка обставила по всем законам жанра – в масках и с топором. Сначала налетчики взяли в оборот хозяйку, которая стояла в это время на крыльце, и стали требовать у нее деньги. На ее крики подоспел ее супруг, который сумел увернуться от топора и начал бороться с молодым противником. Пожилой человек сумел одолеть визави и удерживал его до прибытия полиции, которую вызвала жена. Второй грабитель счел лучшим ретироваться с места происшествия.

Однако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задержали поделщика в дежурные сутки. Во время обыска в жилье одного из преступников изъяты веществен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участия в налет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а участника неудавшегося ограбления стали фигурантами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 2016 년, 코르사코브에서 361 쌍이 결혼

2016년 코르사코브 지역에 361쌍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총결혼한 지역주민등록부 직원들이 이와 같은 지표를 발표했다.

그중 남녀 25세부터 34세까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결혼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출생률도 높아졌다. 결산기간 동안 코르코프 지역 주민등록부에는 쌍둥이 3쌍을 포함해 남아 248명과 여아 268명 총 신생아 516 명이 등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화는 숫자에서만 아니라 시민들의 취향에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지어 주는 이름 중 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이름은 – 드미트리, 막심, 아르쭘, 이완, 미하일 이었고 안나, 폴리나, 예카체리나, 아리나, 다리야, 마리야, 소피야 라는 여성이름에 대한 인기도 다시 돌아왔다. 예외적으로 일부 희귀한 이름으로는 남아의 경우 : 파리둔, 찌혼, 라트미르, 스타니스라브, 다워드, 엘리세이, 다니엘, 이그나트, 플라톤이다. 여아의 경우: 니콜, 사미라, 올라, 지야, 카롤리나, 마리얌, 야로슬라바, 율리아나이다.

이혼쌍으로는 2015년과 유사하게 15프로 감소한 243쌍에 달했다고 코르사코브 행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 В 2016 году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361 свадьба

В 2016 году в Корсаков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361 свадьба — на 15% бол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Такие данные озвучили работники районного отдела ЗАГС, подводя итоги прошедшего года. Самыми активными в плане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являются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25 до 34 лет.

Растет и рождаемость.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отделом ЗАГС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изведена регистрация рождения 516 малышей — 248 мальчиков и 268 девочек, в их числе три двойни.

Изменения,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происходят не только в цифрах, но и во вкусах горожан. Многим младенцам родители присвоили популярные имена: Дмитрий, Максим, Артём, Иван, Михаил. Вернулась был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и к женским именам: Анна, Полина, Екатерина, Арина, Дарья, Мария, София. Но были и исключения. Некоторых новорожденных родители назвали редкими именами. Например, мальчиков: Фаридун, Тихон, Ратмир, Станислав, Святослав, Давид, Елисей, Даниэль, Игнат, Платон. Девочек: Николь, Самира, Ольга, Дия, Каролина, Марьям, Ярослава, Юлиана.

Количество развод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меньшилось на 15 и составило 243,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일본 서예 마스터클래스 개최

주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일본총영사관이 사할린주과 학유니버설도서관 지원 아래 1월 22일 일본 서예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

마스터클래스는 도서관 강당에서 14시부터 15시까지 실시된다. 그룹별 모집 인원은 18명으로 입장은 무료다. 문의 전화: 45-25-47.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японской каллиграфии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научн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22 января организуе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японской каллиграфии.

Он состоится с 14 до 15 часов в актовом зале библиотеки. Набирается группа из 18 человек,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5-25-47.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알립니다!

사할린주한인회는 2017년 1월 27일 17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설맞이행사**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장료는 1200루블리.

75세 이상의 1세는 무료입장.

입장권(유료, 무료 상관 없이)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인문화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문의전화: 42-40-87

조직위원회

## 사할린한국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현지채용 직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희망자는 한국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1) 모집 직종 : 사무원
  - 통번역
  - 각종 행정업무
- 2) 지원자격
  - 가. 2017년 1월 1일 기준 만50세 미만 (1967.1.1 이후 출생자) 나. 러시아 국적자
  -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자 우대 라. 컴퓨터활용능력 보유자 우대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 마. 사할린한인동포 사회에 기여자 우대
- 3) 채용기간 : 2017.3.1 ~ 12.31 (10개월)
  - \* 매년 재계약 가능
- 4) 선발절차
  -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
      - 공통: 이력서(교육원 제공 양식), 여권사본
      - 우대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 컴퓨터능력활용 자격증(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서류제출 기간 : 1.23 ~ 2.10
    - 제출방법 : 한국교육원 방문 접수
  -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3배수 면접 \* 2.13 면접 대상자 통보
    - 면접일 : 2.22 10:00 한국교육원
    - 최종발표 : 2.23
- 5) 문의처 : 사할린 한국교육원
  - 주소 :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미라거리 83-A
  - 전화 : 505696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